

내 돈의 첫 번째 기준

멈추고 나누고 비교하는
4주 돈 습관 워크북



하루에 한 걸음, 일주일에 세 번

짧게 읽고, 실제로 적고, 선택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.

01 읽기 · 5분

짧은 이야기를 읽고 “나라면?”을 생각합니다. 예시는 모범답안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살펴보는 도구입니다.

02 기록 · 10분

다음 쪽의 세 질문에 답합니다. 쓸 돈이 없다면 책 속 가상 금액을 사용해도 됩니다.

03 대화 · 5분

보호자와 질문 하나를 나눕니다. 혼자 공부한다면 나에게 말하듯 적어 주세요.

04 주간 회고

매주 마지막 쪽에서 내 기준 한 가지를 만듭니다. 못 한 날을 보충하느라 하루에 몰아 쓰지 않아도 됩니다.

4주, 12번의 선택

본문 40쪽 · 읽기와 작성 활동 · 4장의 주간 회고

WEEK 01 멈추기

- 01 필요와 욕구 사이에 선 긋기 7
- 02 충동 앞에서 잠깐 멈춤 9
- 03 내 선택의 이유 찾기 11

WEEK 02 나누기

- 04 세 칸으로 돈 나누기 15
- 05 목표를 작은 칸으로 바꾸기 17
- 06 예상 밖 지출에 자리 내주기 19

WEEK 03 비교하기

- 07 가격표를 같은 크기로 비교하기 23
- 08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전체 보기 25
- 09 광고와 사기 신호 알아보기 27

WEEK 04 돌아보기

- 10 쓴 돈을 사실대로 기록하기 31
- 11 가족과 돈 이야기를 안전하게 하기 33
- 12 다음 4주의 나만의 기준 35

38 나의 선택 도구함 / 39 다음 4주 계획 / 40 다음 선택으로 이어가기

멈추기

01

사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. 마음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면 나에게 맞는 선택이 보입니다.

01 필요와 욕구 사이에 선 긋기

02 충동 앞에서 잠깐 멈춤

03 내 선택의 이유 찾기

필요와 욕구 사이에 선 곳기

갖고 싶은 마음을 나쁘게 보지 않고 우선순위를 찾는다

돈을 쓸 때 '필요'는 생활과 안전, 약속을 지키는 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, '욕구'는 없어도 지낼 수 있지만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더해 주는 것이다. 둘은 언제나 딱 잘라 나뉘지 않는다.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우산은 필요지만, 이미 멀쩡한 우산이 있는데 유행하는 우산을 하나 더 사고 싶다면 욕구에 가깝다. 같은 물건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다. 중요한 것은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모두 참는 일이 아니다. 지금 내게 왜 필요한지, 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, 집에 대신 쓸 것이 있는지를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. 판단이 어려우면 '지금 꼭 해결해야 하나?', '이미 가진 것으로 대신할 수 있나?', '내 일도 같은 마음일까?'를 묻는다. 필요와 욕구 사이에 '보류'라는 칸을 두어도 좋다. 보류는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해 시간을 버는 방법이다. 오늘의 분류는 영원한 정답이 아니므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판단할 수 있다.

생활 속 장면

민서는 준비물인 검정 사인펜이 다 닳아 문구점에 갔다. 진열대에는 1,000원짜리 사인펜과 캐릭터가 달린 3,500원짜리 펜이 있었다. 집에는 비슷한 캐릭터 펜이 두 자루 있다. 민서는 새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만 이번 주 용돈으로 친구 생일 카드 재료도 사야 한다. 무엇이 필요이고 무엇이 욕구인지 표시한 뒤, '보류'할 선택도 찾아보자. 어느 쪽을 골라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.

함께 풀어 보기

민서의 용돈은 8,000원이고 카드 재료는 4,000원이다. 사인펜 1,000원을 사면 $8,000 - 4,000 - 1,000 = 3,000$ 원이 남는다. 캐릭터 펜 3,500원을 사면 $8,000 - 4,000 - 3,500 = 500$ 원이 남는다. 두 선택의 차이는 $3,500 - 1,000 = 2,500$ 원이다. 민서는 '글씨를 쓰는 기능'이 지금의 필요라고 생각하고 1,000원 펜을 골랐다. 캐릭터 펜은 상품 이름만 메모해 두고 일주일 뒤에도 원하는지 다시 보기로 했다. 계산을 거꾸로 확인하면 $3,000 + 1,000 + 4,000 = 8,000$ 원으로 맞다.

필요와 욕구를 나누는 목적은 욕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.

내 선택을 적어 봅니다

필요와 욕구 사이에 선 곳기

01 최근 사고 싶었던 물건 하나를 쓰고, 사지 않으면 생기는 실제 불편을 한 가지 적어 보자.

02 그 물건을 집에 있는 것, 빌릴 수 있는 것, 더 저렴한 것으로 대신할 방법을 각각 찾아보자.

03 그 물건을 '필요·욕구·보류' 중 어디에 둘지 정하고 판단 근거를 두 문장으로 쓰자.

오늘의 작은 실천

오늘 눈에 띈 물건 하나를 바로 사지 말고 필요·욕구·보류 중 한 칸에 적어 본다.

함께 나눌 질문 그게 정말 필요해? 대신 '사지 않으면 어떤 점이 불편하고, 대신 쓸 것은 있을까?'라고 물어보세요.

1주차, 나의 기준 한 줄

잘한 금액 대신 선택한 이유를 돌아봅니다.

기억에 남는 선택과 그때의 이유

다시 한다면 바꾸고 싶은 한 가지

다음 주에 지킬 나만의 규칙

이번 주를 마치며

“나는 돈을 잘 못 써” 대신 “나는 _____을 연습하고 있어”라고 적어 보세요. 완벽한 기록보다 다시 시작하는 한 번이 중요합니다.

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준이 됩니다

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용돈도,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계획도 아닙니다.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있고, 계획이 달라졌을 때 다시 고를 수 있는 힘입니다.

사이트에서 계속 연습하기

모두의 돈공부의 무료 예산 연습과 생활 미션을 활용하세요. 책에 적은 규칙을 다음 선택에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.

money.mybestedu.ai

편집 참고 자료

CFPB, Money as You Grow / Budgeting for needs and wants

consumerfinance.gov/consumer-tools/money-as-you-grow/

Canada Financial Consumer Agency, Teaching children about money

canada.ca/en/financial-consumer-agency/services/teaching-children-money.html

참고 자료의 교육 방향을 검토했으며, 본문 이야기·질문·활동지는 새로 작성했습니다. 출처 확인: 2026-09-22.

문의: teachertshare2024@naver.com